

여성 시인들, 황혼의 '화양연화'

장성 출신 박형동 시인 지도 7080 박순임·김애자·박정애 시인 나란히 늦깎이시집 발간 화제

예로부터 장성을 일컬어 '문불여장성' (女不長城)이라고 했다. 학문과 문장에 대해서는 장성에 견줄 곳이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장성에는 내로라하는 학자와 문인들이 많았다. 하서 김인후, 노사 기정선 등 조선시대 학자들의 학풍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현대문학 부문에 있어서는 현대 희곡과 연극에 기여한 김우진을 비롯해 전후 어린이를 위한 동요에 족적을 남겼던 김일로, 황폐해진 문단에서 뛰어난 문인을 양성했던 박흥 시인 한국 수필의 거목 이상보 등은 장성이 낳은 대표 문인들이다.



박형동 시인(오른쪽) 지도로 시집을 펴낸 박순임 시인(왼쪽부터), 박정애 시인, 김애자 시인. <박형동 시인 제공>

이들의 문학적 열망, 후배 양성에 대한 노력 등이 맞물려 장성의 문학은 오늘날에도 뛰어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문불여장성의 맥을 잇기 위해 장성군립도서관에서 예비 문인들을 대상으로 문학지도도를 했던 시인이 있어 화제다. 박형동 시인(전 전남문인협회장)이 그 주인공.



최근 박형동 시인의 지도를 받은 70-80대의 시인들 3명이 나란히 시집을 발간해 화제다.

박순임 시인(지위되지 않는 발자국은 더 아름답다), 김애자 시인(모닝 할머니의 봄날), 박정애 시인(겨우루 사는 여자3) 등 노(老) 여류 시인들이 펴낸 각각의 시집은 삶의 연륜과 문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이들 3명 시인들은 지난 2021년,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출판비를 지원받아 작품집을 발간할 만큼 필력을 인정받았다.

리는 수필집을 내기도 했다. 특유의 감각과 문체로 자신만의 문학의 발을 일궈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박형동 시인은 안타깝게도 얼마 전 건강을 잃은 적도 있었다. 다행히 몸이 회복되고 난 후로 "덤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글쓰기를 고리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광주 신웅동 복합공공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의를 진행 중이다.

문예반장을 맡아 문장반 활성화에 기여했던 김애자 시인은 "명색이 시인이라 하지만 좋은 발상이 안 떠오를 땐 한 줄의 문장도 쓸 수 없다"며 "나는 손주의 말속에서 진주를 캐내듯 내 시보다 몇 배 더 아름다운 시를 읊는다"고 했다.

문예반장을 맡아 문장반 활성화에 기여했던 김애자 시인은 "명색이 시인이라 하지만 좋은 발상이 안 떠오를 땐 한 줄의 문장도 쓸 수 없다"며 "나는 손주의 말속에서 진주를 캐내듯 내 시보다 몇 배 더 아름다운 시를 읊는다"고 했다.

"내 정원에/ 예쁜 별장 한 채 들어섰네/ 주인 허락도 없이/ 비 오는 날 비단실로 지어놨네// (중략)// 예쁜 비단집에/ 하얀 신선이 머무니/ 내 정원이 무릉도원 되었는데"

특히 박형동 시인의 지도를 받은 유준덕(소희) 씨는 유능한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협성문화재단의 '뉴 북 프로젝트'에 선정돼 '내 이름은 춘석'이라는 수필집을 내기도 했다.

"거미줄"이라는 시는 착상과 언어적 묘사가 돋보인다. 마치 시인은 즐거운 놀이를 하듯 시를 쓰고 있는 듯하다.

전남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공모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2024 상반기 소장작품 구입 공모'를 진행한다.

모 절자로 수집된 우수한 작품들을 통해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문화 향유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 작품, 전남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품, 전남의 역사·지리·자연·문화적 특징을 소재로 한 작품을 수집한다. 미술관은 공모 절자로 수집된 우수 작품들을 통해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문화 향유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작가, 화랑, 법인 관련자 등 작품 소장자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신청자는 1점, 화랑·법인인은 최대 2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

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품수집추천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2차에 걸친 심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 작품은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실시한다. 매도를 원하는 작가 또는 소장처는 등기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우편 소인 기준으로 5월 20일까지 가능하다.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및 미술관 SNS를 통해 확인.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 꿈나무들의 오케스트라 협연

광주여성필하모니 연주회, 다음달 2일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 장면.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공>

지역 클래식 전공자들의 등용문이 좁아지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협주 기회를 주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총감독 김유정·광주여성필)가 '협주곡 연주회'를 5월 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초·중·고 주니어 및 대학생 전공생들이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해 경험을 쌓는 기회다.

클래식 주니어 김리안은 '자이츠 4번 D장조 Op.15'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 D장조 K.218'은 문설아(바이올린), 배바 곡 '클라리넷 콘체르티노 E플랫장조 Op.26'은 전형주(클라리넷)의 선율에 담긴다. 서도현(바이올린)은 비발디 '사계' 중 여름과

문티의 '차르다시'로 관객들을 만난다.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Hob. VIIb:1'은 김도연(첼로),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D장조 Op.283'은 손지호(플루트)가 연주한다.

이 밖에도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Op.64' (홍민지·바이올린)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단조 Op.23' (장지운·피아노)가 레퍼토리에 있다.

광주여성필 김유정 총감독은 "명 협연곡 작곡가로 손꼽히는 이들의 작품을 만나는 이번 공연이 음악 애호가들을 비롯해 관객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연장을 찾아 초·중·고·대학생 새내기 연주자들에게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초대 /최류민 기자 rubi@

광주대 출신 문학 청년 '한국과학문학상'

문창과 졸업 김연수 씨 'spira' 장편부문 수상

과학의 발전과 진보 등을 토대로 형성된 작품을 과학문학이라고 한다. 일명 SF(science fiction)는 과학적 상상력과 인간 사회, 미래의 사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작품을 일컫는다.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김연수(필명 김아인) 씨가 제7회 한국과학문학상에 장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spira'이며 상금은 2000만원.

허블출판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과학문학상은 김초엽, 천선란 등 기존의 SF 소설계를 이끈 작가를 배출한 SF 신인 문학상으로 정평이 나 있다.

SF 소설은 지난 2010년대 후반부터 독자층이 많이 생기고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의 기묘한 사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분야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을 비롯해 강원도 등에서 살았던 김씨는 문예 창작을 공부하기 위해 광주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전화 통화에서 그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이기호 소설가가 광주대 문창과 교수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작가가 되는 첫걸음으로 문학상을 꼭 받고 싶었는데 이번 수상자가 돼서 기분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장편소설, SF 쪽으로 열심히

계속 쓸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재 김 작가는 부산에서 야간대학을 다니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수상작 'spira'는 정신을 전산화하는 기술이나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며 "가상세계와 관련한 거대한 기업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소설"이라고 말했다.

그가 SF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틀에 박히지 않는 이야기를 큰 세계관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에 작가가 되기 위해 신춘문예나 공모전에 응모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그러나 작가가 된 이상 좀더 넓은 세계관으로 다양한 작품을 쓰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연수 씨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